

## 하나마이크론, 1,500억 규모 비메모리 생산시설 추가 신규 투자

▶ 비메모리 분야에서 완제품 테스트의 물량 증가에 따른 고객사 수요 대응

**[2021-08-25]** 하나마이크론이 비메모리 부문에 1,500억 원 투자를 집행해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및 테스트 전문기업 하나마이크론(067310, 대표이사 이동철)은 25일 비메모리 사업 확대와 고객사의 수요 대응을 위해 1,500억 원 상당의 시설 투자를 진행한다고 공시했다.** 아산 사업장 내에 비메모리 제품 TEST 생산 라인을 확장하는 것으로 투자 기간은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며 신규 설비는 2022년부터 가동될 계획이다.

이번 시설 투자 목적에 대해 회사 측은 “비메모리 분야에서 완제품 테스트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 고객사 수요 대응을 위한 생산능력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하나마이크론은 2019년~2020년에 걸쳐 약 450억 원을 투자하여 비메모리 완제품 테스트로 사업분야를 확대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설비 투자가 완료되면 하나마이크론의 비메모리 테스트 연간 생산능력은 1,300억 원 규모까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테스트 분야는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어, 2022년부터는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하나마이크론은 기존 메모리 사업 외 비메모리 분야까지 사업영역 확대를 공고히 하며 제2의 도약기를 도모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비메모리 테스트 부문의 수요 확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번 대규모 투자 실행을 결정했다”라며 “이를 통해 매출 증대와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하여 회사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마이크론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226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140% 증가한 수치를 달성했다.